소중한-09년9월 2009.9.9 05:11 PM 페이지1 001 PrintToPDF

함께하는 아름다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소식

2009년 9월호

www.ppp.or.kr 한글주소 "소중한사람들"

100-859 서울 중구 중림동 274-3 ☎ 02-365-9105~7 대표전화 365-9106, Fax.02-365-9104

노숙인들의 새로운 가정- 소중한사람들 쉼터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갈 곳 없이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안식터로 모여든 소중한사람들 쉼터는 그들의 새로운 가정이 되었다. 쉼터에 입주한 사람들은 마치 노숙인이 되기 전에 고향집에서 온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혈액형도 각각 다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이 생겼다. 자활 근로를 하고 저녁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나서 쉼터에 들어 온 형제에게 조금도 싫은 내색 없이 저녁을 챙겨주고, 없는 돈이지만 주머니를 털어 저녁을 사주기도 한다. 고아원에서 자라온 한 입주자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누구와 상의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젠 옆에 있는 동료와 의논하고 쉼터 식구들과 함께 선택하는 기쁨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이라 한다. 쉼터에는 2층 침대 6개가 새로 들어와 환경을 정갈하게 정리해 주었다. 자신의 이름이 붙어있는 한 칸이 침대가 그들은 수 십 평의 빌라보다 더 좋단다. 일이 다 끝난 저녁 시간에 넓은 거실에 모여 앉아 담소도 나누고 TV도 시청하며 예수 가족임을 확인한다.

서울역 찬양과 나눔 여름의 끝자락

서울역 우체국앞 지하도로에서는 5년을 변함없이 새벽을 가르며 달려온 소중한 사람들의 밥차에서 풍겨나는 구수한 국과 밥, 김치를 나누는 풍경으로 아름답다. 8월에는 우리은행 수지 신정 지점, JF&B(초코렛회사), CBMC(기독 실업인회),수색감리교회, 목동제자 교회, 하나로 교회, 드림의 교회가 참여 했다. 새벽 5시30분부터 6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배식을 받고 허기진 배를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가는 노숙인들의 행복한 웃음은 엄청난 화력의 가스 불 앞에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밥을 하고 국을 끓이던 그 무더위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었음을 힘있게 고백한다.

소중한 사람들 교회 예배와 점심나눔 매일 11시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11시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점심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청파감리교회, 장춘단 성결교회, 높은 뜻 숭의 교회, 목동제자교회, 하나로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봉사했다. 8월에는 역삼세무서 재산세과에서 휴가시간을 봉사로 대체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의 설교는 김수철목사, 유정옥 회장, 이관희 목사, 이은철목사, 송연숙 전도사가 담당하고 있다. 오후 2시에는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유정옥 회장) 수요일 성경공부 모임(이관희 목사) 목요일 영어 교육(유부자권사)이 실시되고 있다. 8월에는 캐나다 선교사인 김규환 목사님이 다녀갔다.

이발봉사(목동제자교회)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목동 제자 교회 이발 봉사팀이 나와 노숙인들의 이발을 해주고 있다. 노숙인들은 이발을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미리 머리를 감고 기다리기도 했지만 여러 날 머리를 감지 않아 끈적하고 엉켜진 머리카락도 마다치 않고 친절하고 정갈하게 이발을 해 주었다.

치료봉사(선한목자병원)

선한 목자 병원에서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에 소중한 사람들 센터에 나와 노숙인들의 무료 진료를 해주고 있다.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의료봉사는 병원을 갈 수 없는 노숙인들에게 생명의 손길이 되고 있다. 무료 진료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선한 목자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해 준다. 노숙인들의 환부를 정성껏 치료해 주는 이창우 원장님의 손길은 문둥병자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던 주님의 손길을 연상케 한다.

의류 나눔(영락교회, 석천제일교회)

영락 교회(이철신목사)와 석천 제일 교회(최동주목사)에서 노숙인들에게 나눌 의류를 수백점 보내왔다. 의류를 계절과 크기로 분류해 노숙인들이 필요한 것을 찾기 쉽게 진열하여 나누어 주었다. 의류 후원으로 혜택을 받은 노숙인은 200여명에 달한다. 옷을 받은 노숙인들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옷을 목에 감아 보며 즐거워 했다.

소중한 열매 주렁주렁 8 – 김화일

소중한 사람들이 나의 집이고 이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의 새로운 식구라는 김화일님은 1942년 대구시 남산동에서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영남대학의 전신인 청구대학을 졸업하고 28세에 중매로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기도해 주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공항의 활주로가 환히 내다보이는 그의 집 유리창이 가물가물하게 보이더니 유리창이 깨지는 것 같았다. 그 때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오색찬란한 광채를 보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그에게 형채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건강한 몸이 되어 고등학교와 명지대학을 졸업했다. 키가 작고 체중이 미달되어 군대는 면제가 되었다. 24세가 되던 해. 사우디로 해외 직장을 나갔다. 사우디에서 근무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여자와 펜팔로 사귀었고 3년 후 27세가 되던 해 결혼을 하였다. 결혼 후 아내는 그대로 필리핀에 살고 그는 사우디에 근무하면서 필리핀을 오고 갔다. 그렇게 9년을 근무하고 일본으로 갔다. 일본에서 3년을 지내고 드디어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다. 그동안 딸 셋과 아들 하나 얻었다. 필리핀에서의 18년 동안은 정말 꿈같은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항상 떠나지 않는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소식이었다. 어느 때부터 소식이 끊겨 그의 마음에 깊은 시름이 되었다. 급기야 그는 한국으로 나왔다. 부모님의 행방을 찾았더니 돌아가신 뒤였다. 2남 2녀 중 장남이었던 그는 동생들의 이기심 때문에 부모님들과 소식이 끊어졌고 재산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재산을 찾기 위해 한국에 남았다. 그러나 재산은 배당 받지 못하고 세월만 흘러갔다. 한국에서의 8년은 그의 인생을 힘들게 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15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봉제 공장을 하고 있다. 셋째 막내 딸은 이제 한국에 나가지 말고 필리핀에 식구들과 살자고 조른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 들어와야 마음이 편하다. 그동안 돈을 사기 당하기도 하고 근로하여 번 돈을 몽땅 도둑맞기도 했지만 주님이 병을 고쳐준 은혜를 생각하며 한국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살고 싶다. 열심히 일한 돈으로 저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 후원금도 낼 수 있어서 그는 행복하다. 이제 추석 대까지 돈을 모아 필리핀에 다녀올 희망으로 그는 지금부터 설레인다. "이번 추석에도 필리핀에 갔다가 다시 돌아 올거에요. 나에게 고통을 많이 준 한국이지만 주님을 만난 한국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를 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가 청소로 맡은 중림동 길은 쓸고 또 쓰는 그의 부지런한 손길에 안방처럼 깨끗하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중림동 쎈터에서

신바람 난 중보기도팀–기도제목 줄줄이 응답받아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174회)이 계속되고 있다. 소중한 사람들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 한 후 참석자 개개인의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 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의 불씨가 우리나라 전역과 전 세계로 번져 갈 것이다. 우리는 7000명 기도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7월에는 그동안 중보기도 했던 기도 제목들이 줄줄이 응답을 받았다.

백혈병으로 고통 받던 박미나 소녀가 병원으로부터 완치로 판정되었고

뇌종양을 앓으면서도 믿음과 찬양을 잃지 않았던 백정은님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결혼 6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나동일목사님이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내온 것을 필두로 이성일 목사님이 아기 잉태의 기쁨을 보내왔다.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 준 소중한 사람들 중보 기도 모임팀에 감사한다는 소식과 함께.

중보 기도 제목

1. 한국이 전세계를 복음화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2. 대학마다 직장마다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2. 소중한 사람들 사역(무료 급식, 소중한사람들 교회, 자활 쎈터, 그룹홈, 희망 프로 젝트 근로, 노숙인 자활 돕기, 샤워, 이발, 무료 진료, 상담, 의류 공급)을 위해
3. 미얀마에 소중한사람들 사역 고아원 운영과 무료급식 사역과 병원건립을 위해
4. 말기 암환자 무료 병원 건립을 위해
5. 동역기관 (CBMC, 세계기독간호선교회, 선한 목자 병원 기독 연예인회, 미국 뉴저지 크리스챤 아카데미, TFL)
6. 김영문, 구영애,김건작, 최유운, 박미나, 신형진, 백정은, 이기정, 한종석, 김선미, 김수경, 최은성, 황지우
7. 아기 잉태 – 노미령, 김호정, 서영호,이성윤, 이세란, 이용자
8. 김동민 – 옥에 갇혀 있지만 믿음 잃지 않도록, 밖에 있는 아내와 자녀를 주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 7월에 중보기도 모임 참석자: 유부자, 한귀원, 박무굉, 나민숙, 송연숙, 김호정, 하수정, 김수실, 민경익, 이승아, 유정옥, 김수철, 백정혜, 김경녀, 권순향, 김정미, 고연남, 송철우, 이성일, 박선인, 김규환, 장정문, 이성웅, 이한나, 채수웅, 고미경, 손 향, 손향문, 손향인, 원현숙,

소중한 사람들 청평 무료 요양소 건축–

199. 김영신 200. 유부자 2명이 가입

1.이원옥 2.김옥겸 3.이방훈 4.박혜정 5.이선아 6.이민규 7.이선재 8.황호영 9.이충희 10.김오철 11.박승우 12.이 활 13.장영택 14.단혜봉 15.고명숙 16.김순하 17.최관호 18.박미선 19.김영숙 20.정미진 21.이관규 22.이명규 23.이미옥 24.송춘홍 25.조경숙 26.이계영 27.이영선 28.박미양자 29.조은래 30.조소영 31.김수철 32.이성일 33.이성웅 34.유정옥 35.이영도 36.김인숙 37.신동훈 38.조현숙 39.박영란 40.백제원 41.백승원 42.이미몽 43.사재신 44.박리브가 45.진경 46.김부녀 47.김경자 48.강애자 49.최병한 50.강인순 51.황옥남 52.이송희 53.송미희 54.심재록 55.김건작 56.고무겸 57.유예린 58.문지혜 59.김정숙 60.안상국 61.안은숙 62.김영미 63.이동식 64.맹의균 65.이가원66.이상수 67.박해숙 68.이상준 69.이원영 70.심 형 71.김대현 72.김경자 73.현민숙 74.이명구 75.무명 76.김모세 77.이현미 78.김미아 79.장광옥 80.고인숙 81.김갑균 82.김경녀 83.박경수 84.하나로교회 85.김현희 86.서상원 87.정수정 88.임채은 89.임채원 90.권상대 91.정득진 92.이제선 93.이주연 94.노미령 95.김대영 96.이금복 97.권민진 98.송연숙 99.정순철 100.김호정 101.고오남 102.김성옥 103.박정윤 104.안정옥 105.윤희영 106.이영태 107.하 윤 108.성현주 109.이영미 110.강혜경 111.한귀원 112.김상원 113.김성은 114.이승아 115.서재화 116.장지호 117.장정문 118.이재성 119.최현숙 120.유순자 121.안혜정 122.최형배 123.황길임 124.신애라 125.차인표 126.차정민 127.차예은 128.차예진 129.민경익 130.신길선 131.채수웅 132.고미경 133.채준병 134.채단비 135.백현선 136.이순철 137.주영훈 138.예수사랑 139.최호상 140.이승수 141.이문순 142.피영애 143.탁난영 144.한종배 145.김천수 146.이광옥 147.박순애 148.김애란 149.홍혜련 150.최유리 151.이성일 152.박선인 153.이성호 154.윤유선 155.이동주 156.이주영 157.김형락 158.이말희 159.김주연 160.손삼영 161.송인순 162.김인규 163.탁용화 164.서영숙 165.신무자 166.최병석 167.오정현 168.이대제 169.유정애 170.이귀래 171.김연숙 172.참사랑어린이집 173.손창열 174.이보영 175.박성호 176.이춘자 177.이우엽 178.조은수 179.박순옥180.김순혜 181.정선영 182.탁치봉 183.허인애 184.한종탁 185.김난심 186 최신애 187.유영애 188.양상준 189.박정호 190.임혜순 191.백인기 192.안소옥 193.박영남 194.정혜인 195.이정자 196.유부자 197.황용남 198.김일홍 199.김영신 200.유부자

천사회원에 참여하려면 홈페이지 들어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아래 전화로 문의 하면 된다.

전화 011-9779-3045 송금계좌 국민 513901-01-123326 소중한사람들

미국 소중한사람들 (Precious People) 사역

1.무료급식

배고픈 홈리스들에게 빵과 스프, 커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 아침 LA다운타운 Crocker st 4가에서 7시 예배 후 음식 나눔을 갖는다. 2002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하고 있다.

2.자활쎈터 운영

집 잃은 홈리스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생활훈련, 봉사훈련, 사회적응 훈련, 직업훈련,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213-385-4515 www.streetla.org

미얀마 소중한사람들 사역

1.고아원 운영

소중한 사람들은 미얀마에 고아원을 설립하여 20여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다. 고아 한 명을 학교에 보내고 생활을 돌보는데 쓰이는 금액은 한 달 4만원인데 고아와 후원자가 1:1로 연결하여 후원하고 있다.

2. 무료급식

미얀마 극빈자에게 무료 급식을 나누고 있는데 이 후원금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보내 주는 것과 노숙인들이 매일 100원씩 헌금하여 충당하고 있다.

3. 병원건립

미얀마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건립하게 된다.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고 있는 선한목자 병원(이창우 원장님)에서 이 일을 맡는다.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좀처럼 물러 설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가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으로 바뀌더니 이젠 제법 쌀쌀한 기운을 줍니다. 무더위에 가스 불 앞에서 밥을 지으려면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지만 차라리 우리가 덥고 어려울지언정 노숙인들이 추위에 떠는 것을 보는 것은 더 아픔이기에 날씨가 추워오는 것에는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고통이 전세계를 휩쓴지 1년이 되어 오니 변함없이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님들의 형편은 어떤지 자꾸 마음이 갑니다.

희망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으면 가장 먼저 십일조를 구별하여 헌금하는 쉼터의 식구들...암으로 투병 하는 가운데 병상에서 드린 김영문님 1차 항암치료 후 많이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오늘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축사하시어 히스기야 왕에게 에게 허락했던 생명의 연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삼성이 믿음의 기업이 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김영진님이 보내 준 십일조와 인터씨티워십, 라이온스서울연은지구 354-D 지구, 청파감리교회, 강변 교회, 드림의 교회, 두운 교회, 글로벌 인증쎈터, 소망교회제1 남선교회, HABA어학학원, 주님의 교회 권사회와 최명희, 이응수, 주영훈님, 또한 미국의 뉴저지 갈보리 교회와 김형규님가족께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사역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다달이 CMS를 통하여 후원하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 달에도 후원자님들의 보내주시는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소중한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 할 것입니다.

이 달에도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신 후원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소중한사람들 일동

8월 후원해주신 분들 (2009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십일조

김영문(350,000 김영신(105,000) 김영진(300,000) 김용수,송연숙(50,000) 김장권(100,000) 김효선(145,000) 송명희(60,000)
송철우(100,000) 우영석(20,000) 유부자(100,000) 이경훈(100,000) 이대원(90,000) 지해나(30,000) 최기덕(80,000)
최성철(70,000) 최한조(120,000) 한장길(40,000)

개인후원

고희영(10,000) 김기윤(30,000) 김남현(100,000) 김동민(10,000) 김성숙(30,000) 김순하(22,000) 김영진(100,000) 김운숙(10,000)
김은용(31,750) 김인수(10,000) 김장권(60,000) 김현미(20,000) 김효숙(10,000) 박기종(50,000) 박기종(50,000) 박수근(50,000)
박순애(100,000) 선우정자(100,000) 손영진(20,000) 송철우(10,000) 신사숙(10,000) 우덕현(65,000) 유성오(100,000) 유영연(10,000)
윤병종(10,000) 윤여한(10,000) 윤영숙(120,000) 윤영진(10,000) 이상운(30,000) 이원근(30,000) 이원옥(100,000) 이은혜(10,000)
이응수(300,000) 이장우(40,000) 이춘자(10,000) 임옥규(10,000) 임혜란(10,000) 장영옥(30,000) 장자인,장광욱(50,000)
장정문(20,000) 장지호(50,000) 전순균(1,000,000) 전영희(10,000) 정미정(20,000) 정상광(100,000) 정순칠(30,000) 정순칠(30,000)
정윤희(10,000) 정은형(50,000) 조경숙(50,000) 조영임(10,000) 조호윤(40,000) 채대광(10,000) 최상운,최해운,서현정,최상아,최상인(20,000)
최세희(100,000) 탁난영(500,000) 하재일(100,000) 한경숙(10,000)

기관후원

가좌교회(50,000) 강변교회(300,000) 강변교회(300,000) 광주성결교회(80,000) 글로벌인증센터(500,000)
두운교회(200,000) 드림의교회(300,000) 라이온스서울연은라이온스354-D지구(1,000,000) 만리현성결교회(100,000)
목동제자교회소중한목장(200,000) 문일중학교(30,000) 반월성결교회박종배(100,000) 상도교회(50,000)
서울성결교회(50,000) 서울성결교회(50,000) 서울제일교회(100,000) 선우회(50,000) 소망교회제1남선교회(200,000)
소중한사람들교회(417,000) 송현성결교회(100,000) 신일교회(50,000) 신촌교회지회(50,000)
아현교회(100,000) 안디옥교회(100,000) 약수동성결교회(70,000) 역삼세무서재산세과3계(100,000) 예닮교회한나회(50,000)
온누리교회(100,000) 유설희간호학원(20,000) 인터씨티워십(334,000) 주님의교회천사회(200,000) 청파감리교회(200,000)
하나로교회(100,000) 하나로교회여전도회(40,000) 햇빛과단비(20,000) HABA어학원(100,000) HABA어학원(100,000)

저금통후원

김태현(20,400)

해외후원

뉴저지갈보리교회(100,000) 김형규,김원경(125,000)

미안마후원

김경녀(40,000) 김계연(40,000) 김계연(40,000) 김부녀(40,000) 김석찬(40,000) 김수철(40,000) 김장권(24,000) 김재민(40,000)
김현석(40,000) 박금자(40,000) 박문호(40,000) 박미자(40,000) 박정순(40,000) 박혜정(40,000) 유정옥(40,000) 주영훈(40,000)
최신애(40,000) 탁난영(40,000) 팽현숙(40,000) 평촌호스피스(30,000)

CMS후원자 명단

강명미(10,000) 강명숙(3,000) 강연신(10,000) 강연신(10,000) 강인순(50,000) 강자실(5,000) 강정임(10,000) 강현미(4,000)
강현미(4,000) 강현미(4,000) 고견화(10,000) 고남균(10,000) 고명숙(30,000) 고명희(1,000) 고영덕(10,000) 고오남(20,000)
고윤숙(7,000) 고인균(10,000) 고일록(10,000) 고진희(10,000) 공재철(20,000) 곽경숙(1,000) 곽상미(10,000) 곽상미(40,000)
곽상미(40,000) 곽상배(20,000) 구경옥(10,000) 구정녀(50,000) 구종해(5,000) 권명순(10,000) 권일한(10,000) 권혁천(10,000)
김경녀(20,000) 김경민(5,000) 김경호(10,000) 김광찬(10,000) 김금순(20,000) 김기열(3,000) 김낙준(10,000) 김명순(10,000)
김명진(20,000) 김명희(10,000) 김미경(10,000) 김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미희(100,000) 김백수(10,000) 김번욱(20,000)
김베드로(10,000) 김복한(10,000) 김부녀(30,000) 김상이(30,000) 김선미(2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성혜(10,000) 김세진(30,000) 김소라(10,000) 김소자(5,000) 김수경(10,000) 김수경(30,000) 김수영(20,000) 김수철(30,000)
김순복(20,000) 김승현(2,000) 김승희(10,000) 김승훈(30,000) 김연숙(10,000) 김열매(10,000) 김영님(2,000) 김영미(30,000)
김영삼(10,000) 김영상(5,000) 김영선(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심(10,000)
김영인(1,000) 김영진(40,000) 김영진(10,000) 김영표(5,000) 김옥겸(20,000) 김용김미숙,000) 김원숙(5,000) 김유정(20,000)
김은경(10,000) 김은숙(10,000) 김인수(10,000) 김인숙(10,000) 김정기(20,000) 김정기(30,000) 김정미(50,000) 김정옥(3,000)

김정원(10,000) 김종미(10,000) 김주애(20,000) 김준하(10,000) 김태규(20,000) 김태완(30,000) 김태훈(5,000) 김 김(5,000)
김향숙(10,000) 김현구(10,000) 김현진(20,000) 김혜경(10,000) 김혜란(10,000) 김호경(20,000) 김호정(10,000) 김희숙(30,000)
나승이(20,000) 나주열(10,000) 노미령(30,000) 노유순(5,000) 노정심(10,000) 노황창(20,000) 도진용(1,000) 문경자(5,000)
문성찬숙(홍래(10,000) 민경익(20,000) 민경익(20,000) 박근식(3,000) 박금자(20,000) 박금하(10,000) 박무굉(30,000)
박문숙(5,000) 박미경(10,000) 박미경(10,000) 박미경(10,000) 박미숙(10,000) 박상렬(10,000) 박상렬(10,000) 박상렬(10,000)
박상신(10,000) 박수연(1,000) 박순영(10,000) 박순옥(5,000) 박승우(10,000) 박시용(15,000) 박신영(10,000) 박안순(30,000)
박양미(4,000) 박영찬(10,000) 박영화(50,000) 박용운(1,000) 박용원(20,000) 박은경(20,000) 박인규(5,000) 박정숙(10,000)
박정순(20,000) 박준용(10,000) 박중백(2,000) 박지영(20,000) 박찬미(5,000) 박창권(10,000) 박철모(10,000) 박춘배(10,000)
박혜영(10,000) 박효진(5,000) 박희소(1,000) 배병렬(5,000) 백미현(5,000) 백승걸(10,000) 백승돈(20,000) 백정선(20,000)
백정선(20,000) 백현선(100,000) 백현숙(10,000) 변철석(10,000) 사순희(10,000) 사재신(20,000) 서미란(30,000) 서승희(10,000)
서영호(20,000) 서옥진(20,000) 서재준(5,000) 서희전(10,000) 성기빈(40,000) 성준호(10,000) 손진아(10,000) 송경자(30,000)
송상균(30,000) 송상신(10,000) 송선호(5,000) 송선호(5,000) 송연숙(20,000) 송은숙(10,000) 송재란(10,000) 송정은(10,000)
신건월(30,000) 신동훈(50,000) 신무자(10,000) 신문경(5,000) 신은정(10,000) 신차희(10,000) 신현숙(10,000) 신효래(10,000)
심순자(3,000) 심인숙(20,000) 안경모(30,000) 안소옥(10,000) 안승달(10,000) 안영종(10,000) 안주백(10,000) 안혜정(50,000)
안효철(10,000) 양운식(3,000) 양원식(10,000) 양인권(20,000) 염인숙(5,000) 염인숙(5,000) 염인숙(5,000) 염학남(30,000)
오상원(5,000) 오성태(20,000) 오영선(5,000) 오영숙(20,000) 오주호(20,000) 오한준(5,000) 오현계(20,000) 오혜숙(10,000)
원현정(3,000) 월간창조문예임만호(50,000) 유돈무(10,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숙자(10,000) 유순자(30,000)
유정옥(300,000) 유현숙(10,000) 유형실(30,000) 유혜원(20,000) 유화연(10,000) 윤길자(10,000) 윤미애(20,000) 윤상철(10,000)
윤영숙(10.000) 윤영식(10,000) 윤영진(10,000) 윤예강(10,000) 윤예은(10,000) 윤자경(50,000) 윤자경(50,000) 윤종현(30,000)
이건영(5,000) 이경수(1,000) 이경호(25,000) 이관호(20,000) 이광옥(2,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기우(20,000)
이기정(20,000) 이동남(10,000) 이명훈(1,000) 이미자(10,000) 이미해(5,000) 이미향(20,000) 이민규(1,000) 이방훈(50,000)
이배영(10,000) 이병기(10,000) 이선미(20,000) 이선재(30,000) 이선준(10,000) 이성웅(10,000) 이성웅(10,000) 이순이(1,000)
이승연(10,000) 이승재(10,000) 이승희(10,000) 이신혜(1,000) 이애리(10,000) 이애희(10,000) 이영미(5,000) 이영욱(10,000)
이영주(10,000) 이옥자(10,000) 이옥훈(3,000) 이완기(3,000) 이요선(20,000) 이원범(100,000) 이원영(200,000) 이윤진(3,000)
이은숙((10,000) 이은영(5,000) 이의화(10,000) 이장일(10,000) 이정은(10,000) 이정자(20,000) 이정화(20,000) 이종숙(20,000)
이종춘(10,000) 이주연(10,000) 이주영(10,000) 이중희(10,000) 이지선(10,000) 이찬의(50,000) 이창식(20,000) 이창환(30,000)
이창환(30,000) 이철봉(20,000) 이태현(5,000) 이현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주(10,000) 이현주(10,000) 이혜경(10,000)
이혜경(10,000) 이혜선(10,000) 이혜성(5,000) 이혜연(10,000) 이혜연(10,000) 이혜연(10,000) 이호성(10,000) 이호성(10,000)
이호성(10,000) 이호성(10,000) 이화영(5,000) 이희정(5,000) 임경주(10,000) 임경희(20,000) 임미라(10,000) 임상귀(10,000)
임숙(30,000) 임영이(2,000) 임영환(20,000) 임혜순(30,000) 장명희(10,000) 장문심(10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혜정(30,000) 전영수(20,000) 전은경(30,000) 전진우(5,000) 정광덕(50,000) 정금자(10,000) 정덕규(20,000) 정두섭(10,000)
정미숙(10,000) 정미숙(10,000) 정민경(10,000) 정병옥(20,000) 정성분(10,000) 정성찬(20,000) 정애리(20,000) 정영숙(10,000)
정종근(50,000) 정희자(3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연(10,000) 조광자(10,000) 조남흥(3,000) 조동환(10,000)
조두진(10,000) 조성덕(10,000) 조성완(10,000) 조수영(10,000) 조수자(5,000) 조용균(5,000) 조용배(10,000) 조운정(100,000)
조혜향(10,000) 주동진(20,000) 주영훈(300,000) 주정숙(10,000) 진순애(1,000) 진영균(10,000) 진희범(3,000) 채수웅(30,000)
천영순(10,000) 최광선(10,000) 최명희(300,000) 최미정(10,000) 최미혜(10,000) 최보연(5,000) 최선화(5,000) 최성근(50,000)
최성제(30,000) 최영(10,000) 최영남(10,000) 최영남(10,000) 최영수(10,000) 최영실(2,000) 최영완(20,000) 최옥순(10,000)
최유리(10,000) 최유리(30,000) 최은희(10,000) 최인우(5,000) 최임부(10,000) 최재득(20,000) 최재선(20,000) 최정숙(10,000)
최진명(10,000) 최향수(10,000) 최형준(3,000) 최혜정(30,000) 최홍순(10,000) 최훈순(20,000) 최희남(10,000) 팽현숙(50,000)
표이순(10,000) 하천기(10,000) 한광희(10,000) 한귀원(50,000) 한미운(30,000) 한순란(10,000) 함용성(5,000) 허근(50,000)
허숙경(50,000) 허인애(30,000) 허형재(30,000) 홍순자(10,000) 홍승례(1,000) 홍영희(5,000) 홍원표(10,000) 홍유식(5,000)
황성희(10,000) 황옥남(10,000) 황인순(10,000) 황중문(10,000)

●●● 물품후원

영락교회-의류 석천제일교회-의류 장지호-화이트보드

*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7월 재정보고(지출)는 홈페이지(www.ppp.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주일과 월요일 새벽 서울역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새벽 5시40분에 6시40분까지 서울역 우체국 지하보도에서 배식을 도와주실 분, 특히 매주일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
2.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림동 파출소 뒤, 경기여상 후문 앞)
3. **소중한사람들 행정과 홍보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림동 소중한사람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행정을 도울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식지를 전달해 줄 봉사자들도 필요합니다.
※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 011-9779-3045

소중한 사람들에 후원금을 보내시려면

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연락전화 02-365-9106, Fax. 02-365-9104)
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 농협 1129-01-035507 소중한사람들
우리은행 1005-301-267233 소중한사람들로 보내시면 됩니다.
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국민은행 835068-07-100123 SWIFT CODE : CZNBKRSEXXX
체크로 보내실 경우 Jung Ok Yoo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90006 보내면 됩니다.
5. 청평 호스피스 병동 건축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 (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민 513901-01-123326 소중한사람들

함께하는 아름다움
소중한 사람들
www.ppp.or.kr

서울 중구 중림동 274-3
전화 (02) 365-9106, 전송 (02) 365-9104

서울상계6동우체국
요금별납

100-859